

〈유화기연(柳花奇緣)〉에 나타난

결핍해소의 방식과 그 의미

—결연양상을 중심으로*—

김태영**

〈차례〉

1. 들어가는말
2. 〈유화기연〉의 남녀 결연양상과 기능
3. 남녀결연양상의 특성과 그 의미
4. 나가는말

〈국문초록〉

〈유화기연(柳花奇緣)〉은 제목에서 나타내고 있듯 ‘유’씨와 ‘화’씨의 기이한 연분을 담고 있는 조선 후기 국문소설 작품이다. 남주인공인 유씨의 가문과 여주인공인 화씨 가문의 천정결연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주인공과 기녀와의 결연담을 높은 비중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화기연〉속 남녀의 결연양상은 주인공의 결핍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주인공인 유춘이 영웅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는 신이한 존재의 원조가 아닌 결연을 맺은 여성인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화기연〉의 서사전개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면모를 지닌 남주인공의 결연양상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작중 역할과 효과에 대해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화기연〉에서 남주인공인 ‘유춘’은 전생에 태을선녀와 희롱한 죄목을 가지

* 이 논문은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소변’을 본 특이한 죄목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세에서 성기능이 결핍된 존재로 태어나 고난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다. 전생 연회담에서의 ‘소변’ 사건은 현세에서 성기가 없는 남주인공의 기이한 탄생담에서 더 나아가 고난담으로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남녀의 결연양상에 얽히게 되면서 성기능 결핍에 대한 서사의 확장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유화기연>에서는 천정연분으로 이루어진 ‘화소저’와의 결연뿐만 아니라, 기녀 ‘옥랑’과 결연을 맺는 기녀결연담도 서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기녀 옥랑과는 전생의 연분이 없을지라도 옥랑이 유춘과 강한 결연의지를 드러내고 주도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천정결연에 버금가는 결연관계로 자리매김한다. 유춘과 옥랑의 결연은 기녀인 옥랑이 지인지감(知人知鑑)을 발휘하여 시회(詩會)에 참여한 유춘의 진면모를 알아보고 결연을 주도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옥랑과 유춘의 결연양상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기녀에게 호감을 가져 접근하여 애정결연을 맺고 끝나는 결연담과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옥랑의 형상은 남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류장화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사대부가의 규녀와 비등한 외모와 음률, 시재(詩才)를 갖추었으며 다른 남성들의 희롱에도 유춘말고는 곁을 내어주지 않는 인물로 설정되어 유춘의 결연대상으로 자리함으로써 훗날 남주인공의 성적 결핍까지 해소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유화기연>만의 기녀결연담을 구성하게 된다. 때문에 <유화기연>에서는 남주인공 성기의 결핍문제를 환상성의 요소로 축소시키거나 해결시키지 않는다. 물론 작중에 천상계의 요소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천상계의 요소들을 서사에 배치해 놓았으나 이들은 남녀의 결연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 남주인공이 대외적 영역에서 활약할 때 활약상을 그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춘의 결핍을 드러내어 고난을 제공하고, 또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은 오로지 ‘남녀의 결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며 화소저와 옥랑에게만 각각의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나타난 남녀결연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영웅군담소설의 큰 범주에 속하는 <유화기연>이 지닌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성에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을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화기연, 성기결핍, 결핍해소, 천정연분, 기녀결연, 영웅군담소설

1. 들어가는말

<유화기연(柳花奇緣)>은 제목에서 나타내고 있듯 ‘유’씨와 ‘화’씨의 기이한 연분을 담고 있는 조선 후기 국문소설 작품이다. 남주인공인 유씨의 가문과 여주인공인 화씨 가문의 결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주인공과 기녀와의 연분담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유화기연>속 남녀의 결연양상은 작품의 서사구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사의 갈등전개 및 해소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남주인공인 유춘은 영웅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결핍에 대한 해소는 남녀의 결연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유화기연>의 서사전개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면모를 지닌 성적 결핍과 남녀의 결연양상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작중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결연양상이 주는 효과에 대해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화기연>에 대한 선행연구는 1990년에 시작되어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이루어져 왔으나 선행연구의 양이 약 10편 내외 정도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논의가 1990년 이후 바로 2010년대 이후로 이어져 연구 작업이 건너뛰어 따라 선행연구들 사이의 간격이 넓다. 초기연구인 양혜란의 연구는 작품 <유화기연>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유화기연>을 <유화기몽>과 대조하여 살펴봄에 따라 ‘꿈’이라는 공통적 소재로 묶을 수 있는 작품임을 확인하였다.¹⁾

1) 양혜란, 「<柳花奇緣>의 構造的 性格 檢討 - 꿈의 서사적 기능을 中心으로 -,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정도현의 연구는 <유화기연>의 구조와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²⁾ 이어서 엄태웅의 논의에서는 <유화기연>을 세책본 영웅군담소설 종류의 한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영웅군담소설들과 아울러 고찰한다면 유화기연은 세책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서 주목할 만하다.³⁾ 구선정의 논의에서는 <유화기연> 속 나타나는 군자의 조건과 이면을 통해 ‘장애인’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⁴⁾, 이어서 <유화기연>에 나타나는 성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유동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 나타났다.⁵⁾ 가장 최근 논의인 심치열의 논의에서는 <유화기연>이 지닌 기이성의 소재와 대중성의 요소인 군담의 소재에 주목하여 <유화기연>은 독특한 두 소재의 결합이 있었음에도 독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이유가 오히려 군담의 요소가 장황하게 이어져 소재의 특이성을 잠식시켰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⁶⁾ 이렇듯 <유화기연>에 대해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유화기연>이라는 작품이 지닌 특성이나 서사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목 하였다. 최근의 논의에 이르러 장애인이나 성정체성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영웅군담소설의 군담들과 아울러

2) 정도현, 「<유화기연(柳花奇緣)>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0.

3)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기존 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4.

4) 구선정,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君子)의 조건과 그 이면」,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____, 「<한후통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5) 서경희,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유동의 징후, 그리고 서사의 반동 - <유화기연>의 ‘유춘’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6) 심치열, 「<유화기연>, 기이성과 대중성의 서투른 결합」, 『인문과학연구』 36,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고찰되거나 확장된 군담을 가지고 있다는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작품에 드러난 주인공의 결핍에 따른 고난과 고난을 해소하는 방식이 다른 영웅소설작품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지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세책본의 인기도에 비취보았을 때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구조 확장은 특수한 양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사의 확장 중에서도 남녀의 결연담이 서사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결연관계가 남주인공의 성기능 결핍을 폭로하기도 하고 해소시키기도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유화기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웅의 대외적 활약담과 군담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영웅소설작품의 경우 가문의 이야기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게 넘어가는 서사전개가 많은데 <유화기연>에서는 확장된 군담에 비례하게 가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남녀주인공의 결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유화기연>의 결연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작품을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세책으로 유통되던 동양문고본 7권 7책을 중심으로 <유화기연> 속 남녀의 결연양상과 이에 따른 결핍의 해소 방식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유화기연>의 남녀 결연양상과 기능

<유화기연>의 남주인공 ‘유춘’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생에 ‘태을선’으로 등장하여 요지의 연회 때 ‘태을선녀’와 함께 희롱하고, 소변을 뉘 연회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죄를 저지른 존재이다. 이 죄목으로 현생에

서는 성기능이 결핍된 즉, 성기가 없는 ‘병인(病人)’으로 태어나게 된다. 유춘의 어머니 소씨의 해산을 돕기 위해 나타난 선녀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별이 어렵게 태어난 아기를 보며 남자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음을 일러줌으로써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이한 존재임을 자각시키고, 또한 태어난 아기의 배필은 이미 천정연분(天定緣分)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훗날 구혼을 사양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전달함으로써 남주인공 부모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과 천정배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⁷⁾

여타 고전소설 작품에서 주인공이 태어날 때 천상계의 존재인 선녀가 나타나 해산을 돕는 경우나 태몽의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이미 성별이 구분된 상태에서 이례 없이 주인공이 탄생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직접보고 훗날의 성별을 분간해준다던지 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⁸⁾ 더더욱 소변으로 천상의 연회를 망치는 죄목 때문에 생식기가 없이 현세로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양상은 <유화기연> 서사만이 지닌 독특한 적강화소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천정배필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에서는 전생에 서로 희롱했던 태을선녀가 유춘의 천정배필이며 현세에 다시 만나 구혼을 통해 결연을 맺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유춘의 현생에서는 전생에서부터 매일 천정배필만큼이나 중요한 결연을 맺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녀 ‘옥량’이다. ‘옥량’은 <유화기연>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도, 해산선녀

7) 부인니 혼미하여 불성인스러니 일지 옥인을 심흔지라. 그 호로의 향슈로 아희를 씌겨 누이고 부인고 고 왈, “이 아희 비록남녀를 아주 분별치 못하나 실은 남짓라 일후 장성하여 길시를 만나면 귀를 가언이 오문호를 창성하고 명만스히 흐리니 너무 셔운 니 아지 마르시고 비필은 즈연 텃정년분니 미인곳이 잇서 구혼하기를 각곡히 흐리니 스양치 마르쇼셔.” 언 미필의 섬의 나리며 구름의 울나간곳을 모를네라. (<유화기연> 원문 권지일 8-9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8) 서경희(2017), 앞의 논문, 410~412쪽.

의 예언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존재이다. 하지만 작품의 서사에서 유춘과 기녀 옥랑의 결연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은 유춘이 화소저와 맺는 결연의 양상과 비슷하다. 또한 천정배필과의 결연양상과는 다른 형태의 결연담인 기녀결연담을 작품 전반에 아울러 그려내어 서사를 다층적으로 변개시킨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춘과 화소저의 결연양상과 유춘과 기녀 옥랑의 결연양상을 아울러 살펴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성적결핍의 요소와 결연담의 결합

: 천정결연과 기녀결연을 통한 만남

천정결연으로 맺어진 유춘과 화소저의 현생 만남은 화소저의 아버지인 화상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남주인공이 성적 결핍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보통의 남녀주인공의 결연담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려져 있다. 유춘은 십오세에 아버지인 유처사의 조언에 따라 자하암이라는 절에 들어가 여승 혜원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자하암에 잠시 들린 화상서가 우연히 유춘을 만나게 되면서 결연 서사가 시작된다. 유춘이 나이는 어려보이나 장자 지풍이 있고 용모가 선풍도풍의 영웅지상을 지녔음을 느낀 화상서는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자 마음을 먹는다. 화상서는 매괴를 보내는 대신 자신이 직접 유처사를 찾아가 청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딸과 혼인을 성사시킨다.⁹⁾

9) “금번 흥노의 옥인가락을 만나니 오히려 내게 승홀르 듯흔지라. 잊지 깃부지 아니리오마는 아즉 저의 부형을 니 친히 보아 쾌히 결혼후의야 마음을 노홀거시니 노원흔디 미파만 보니어 청혼혀다가 제 불청혀면 잊지혀리오 그런고로 니 친히 나아가 청혼혀리라.” 부인 공의말을 듯고 더회혀더라... (<유화기연> 원문 권지일 22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처시 청필의 니심의 싱가포르 아지 병인이라 저런 고문거족의 결혼하미 불가하리라. 이의 공경디왈 “쇼싱은 산야촌뵈라. 조경 더관니 힝미 의혼하실지라도 오히려 황강하러든 허물며 존재를 슈고롭게 하여 원로의 발섭하시니잇고, 슈연이나 쇼싱의 집이 슈세를 환넌하져 싱의게 이르러 더욱 빈한하 촌뵈라. 엇지 조경 중신과 결친하오며 또 미둔니 용넌하고 학문니 노둔하여 불학무식하리라. 엇지 미옥으로 뼈와 석을비하며 오작으로 봉황을 썩하리잇고…” 상세 청파의 악연왈 “선싱이 이 어인말습이니잇고 즈고로 남녀의 혼의 부귀빈궁을 논넌하문 니척의 지풍이라. 싱의 녀식이 불민홀가 의려하실지언정 썬문도 누딘신지가로도 금하여 환노의 나지 아니시문 오히려 늙흔 지취를 본바다 분운세계의 무드지 말고져 하시미라. 빈부와 관작유무를 의논홀 비리오. 원컨디 추가지 마르쇼셔.” 처시 고스불허여날 상세 천언만스로 누누 간청하니……. 10)

위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화상서의 태도에도 유처시는 자신의 아들이 지니고 있던 성적 결핍을 생각한다. 때문에 선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가난한 선비임을 핑계로 한사코 혼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던중 유처시는 혼사를 거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구하게 간청하는 화상서의 태도와 일전 태몽에서의 선녀의 천정배필 예언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아들의 결핍을 비밀로 한 채 혼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춘 또한 자신이 병인임을 이유로 혼사를 걱정하나 자신의 결핍을 숨기고 화소저와 결연을 맺게 된다. 여기서 선녀가 암시한 천정배필은 전생으로부터 벌을 받아 성기가 없이 내려온 유춘의 성적결핍을 천정결연의 요소를 통해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함께 희롱했던 화소저와의 현생 결연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천정결연의 양상은 주인공 유춘에게 있어 성기능 결핍 발발에 대한 원인을 부각시키고 또 전생의 연분이 현생의 연

10) <유화기연> 원문 권지일 24-25장, 『유화기연·숙너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분으로 이어지는 면모를 보여주었다면 이후에 맺는 옥랑과의 기녀결연은 천정결연의 면모와 매우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춘과 기녀 옥랑의 결연은 자신의 성기능 결핍을 들킨 유춘이 스스로 수련을 하러 가기 위해 길을 걸던 중 귀공자들이 기녀들과 연회를 하는 자리에 우연히 합류하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유춘은 옥랑의 화용윤택 같은 외모와 창기임에도 요조숙녀같은 태도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옥랑 또한 유춘의 옥안영풍에 반해 안방을 정국할 도락을 흥중에 품은 듯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 여기어 연회 내내 관심을 갖는다.¹¹⁾ 연회가 끝난 후 옥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유춘의 뒤를 쫓아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춘과의 결연을 성사시킨다.

옥랑이 연보를 빨리 하여 싱의 뒤를 도쳐 누의 내려 싱을 보고 왈 “첩의 집이 네서동으로 가면 길가의 분장이 있고 담안의 흥되성기흔 집이 첩의 집이오니 부디 그리로 가쇼셔.”… 나와 마즈 싱의 손을 잡고 회식을 띄여 왈 “아즈 누하 의셔 바로 첩의 집으로 오셔 기다리쇼셔 하여더니 어디로 가게시다가 이제야 오시니잇가.”… 슈년 이리로 천만년을 날녀하나 첩의 천심의 합하지 업더니 천 형으로 낭군을 만나니 평성쇼원이 독한지라. 원컨디 낭군은 비루타 말으시고 첩을 바리지 마르시면 첩이 시녀향의 참네하여 빅년을 피시리니…¹²⁾

위에서와 같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린 옥랑은 기다리던 유춘의 등장에

11) 여자의 일흔은 옥랑이니 화용윤택 계기중 빼혀나 정정 요요흔체되 비록 창기나 숙녀 가인이라. 싱이 일견의 흠탄하더니 차시 옥랑이 뜻밖고 싱을 보니 옥안영풍이 본바 처음이오. 공명 부귀 지상이 외모의 현출하고 안방정국할 도락을 흥중의 품은 듯 흔 지라 심나의 경춘하며 생각하디…(<유화기연> 원문 권지삼 13-14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12) <유화기연> 원문 권지삼 17-20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기뻐하며 영웅 군자를 좇고자 했던 자신의 이상을 밝히고, 유춘을 평생 모시고자하는 뜻을 드러낸다. 유춘은 자신을 따르길 바라며 외지에서 온 연유를 묻는 옥랑에게 전일 수학하던 일과 스승의 조연대로 결연을 맺는 양상을 보인다. 기녀 옥랑과의 결연은 앞서 언급했던 화소저와 맺은 천정 결연과 같이 내정돼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옥랑의 지인지감 능력과 적극성의 표현은 유춘과의 결연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녀결연을 통해 발휘된 옥랑의 추진력은 성기능 결핍의 해소라는 촉매제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성기능 결핍에 따른 갈등의 발발

: 천정결연의 위기와 기녀결연의 결핍해소

유춘과 화소저의 혼사 이후 유춘은 성기결핍이라는 병으로 인해 자신이 절세가인인 화소저에게 설움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원망하며 함께 침소에 들더라도 운우지정을 시도치 않는다. 때문에 혼사 첫날 자신의 옆에서 잠만 자는 유춘을 보고 화소저 또한 척척한 심사를 느끼고 잠을 들지 못한다. 폐백지례 이후 화상서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유춘과 화소저는 낮에는 여느 일반 부부와 다름이 없이 화평하지만, 밤에 동침할 때는 남편 유춘이 냉담한 연고로 화소저의 시름이 깊어간다. 그러던 중 더운 여름날 화소저는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이 든 남편을 보고 이불을 덮어 주기 위해 곁에 다가가는데, 자신의 남편에게 남녀의 표식이 없고 작은 구멍 하나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라 병이 들게 된다.¹³⁾ 이후 나날

13) 이씨 마침 하유월이라. 일기 심열하디 일일은 훈열하미 심극하미 성이 서당의 독서도 하고 작시도 하다가 야심후 드러와 더위를 못이키여 탈건희의하고 상상의 누어 불승 곤너하여 잠을 깊히 드러 몽농하더니 잠결의 더위를 못이키여 덤허든 단금을 버셔바리고 전체를 드러너여겨늘 쇼제 더위를 참고 축하의셔 침선을 다스리다가 보니 금금을 벗고 자는지라. 혹즈 축풍홀가 넘너하여 상하의 나아가 단금을 집어 덤홀계 눈결

이 수척해지고 잘 웃지도 않는 딸을 걱정한 화소저의 어머니는 그 연유를 묻고 사실을 알게 되자 화상서를 원망하기에 이른다.

스스로 탄식 왈 “나의 팔지 무상하여 스람이 되어나 음양을 모르게 되니 금슈 곤충이라도 텃지간의 삼겨나면 음양지니를 모로미 업거늘 우리는 모로논 인성이 되니 옛지 스람이라며 스속을 어더로 죠츠 이리오. 인신 빅년니 묘창히지 일속이오, 우슈의 방울이라. 옛지 슬푸지 아니하리오.”……. 셔열이 극심흔 날 뉴랑이 셔당으로서 드러와 침슈홀제 쇼네 마춤 축하의셔 침션호옵더니 뉴랑이 더위를 못이기에 단금을 버셔버리옵거늘 축풍홀가 녀며호여 금금을 덩다가 여츠여츠흔 모양을 보온지라. 쇼네 심각하미 지성민 이리로 성현군즈와 슈녀절부라도 니성지합은 즈고유시오 뉴즈실녀는 인지상지여늘 지어 쇼녀는 음양을 모로논 폐인이 되오니 쇼녀는 금슈곤충만도 못흔 인성이온즉…….¹⁴⁾

위에서와 같이 화소저는 이성지합의 인지상정을 연유로 자신의 고민된 심사를 고하고, 딸의 이야기를 통해 연유를 자세히 파악하게 된 화소저의 어머니는 평생을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야 하는 딸의 처지를 슬퍼한다. 집으로 돌아온 화상서 또한 부인을 통해 사위가 남녀의 구분이 없는 병인임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숨기고 혼사를 진행한 유씨 가문에 분노하여 사위 유춘을 불러 혹독한 폭언을 퍼붓는다. 장인의 폭언에 화소저를 다시 볼 생각이 없어진 유춘은 바로 집을 나와 본가로 돌아가게 된다.¹⁵⁾ 남주

의 보니 비아리 남녀 표적이 업고 밋밋호거늘 가장 의괴호여 짐짓 츠셔이 살펴보니 남즈도 아니오 녀인도 아니오 다만 적은 굶기 잇는지라… (<유화기연> 원문 권지가 3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14) <유화기연> 원문 권지가 6-7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15) “그런 병인으로써 나의 만금 녀아를 비호여 빅년신세를 맞게하니 세상 천하의 이런 무거불측지시 어더 잇시리오… 이럿듯 스람을 속여시니 심각홀스록 분통흔지라… 네 내집의 잇셔 일일 상디호면 나의 심시 더욱 견딜길 업스니 빨리노라가 니눈의 뵈

인공의 성기능 결핍은 부인 화소저에 의해 처음으로 발각되나 장인 화상서가 그 사실에 분노하여 곧바로 유춘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서 옹서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유춘의 성기능 결핍이라는 요소는 이별 및 갈등을 초래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남녀주인공에게 최대의 위기를 제공한다.

위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옥량은 유춘과 연분은 맺었지만 며칠간 동침함에도 운우(雲雨)의 정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의심쩍게 여기고 직접 사태파악에 나선다. 옥량은 연회를 크게 열어 유춘을 즐겁게 해주는 것 성공했으며 침석에서의 유춘의 행동은 여전히 운우의 정을 거부하므로 잠결인 척 유춘의 다리 사이를 만지게 되는데 이때 옥량은 유춘이 남녀를 분간할 수 없는 형태의 생식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야심함미 또 동침혈시 성이 부부 교합하는 낙은 무심함미 작아와 일반이라. 옥량이 마음이 착급하고 의심이 만단하나 엇지홀길없서 그 밤을 지내고 제 삼일이 되어 또 여전허거늘 옥량이 한 씨를 생각하고 잠결인체 하고 몸을 성의게 부더치며 손녀 즈연 성의 낭각 스이로 드러가니 아모것도 업는지라. 디경실식하고 흥적이 막혀 슈괴허를 낮고 급히 니러나 불을 혀며 물고 넘치하고 다라드러 즈서이 보니 남녀를 불변하는 병인이라.¹⁶⁾

유춘은 놀란 옥량에게 그간의 곡절을 설명하고 이를 들은 옥량은 유춘의 작은 구멍이 나있는 생식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한다. 이후 한 번 더 술자리를 열어 크게 취해 잠이든 유춘을 바라보며 모진마음을 먹고 칼

지말미 울홀가 호노라.”(<유화기연> 원문 권지이 9-10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16) <유화기연> 원문 권지삼 23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로 생식기에 난 작은 구멍을 베어내는 행위를 저지른다. 이로 인해 구멍 뒤에 숨겨져 있던 완전한 형태의 생식기가 나타나게 되고 유춘은 마침내 성기능의 결핍에서 해소된다.¹⁷⁾ 옥랑의 파격적인 행위 덕분에 완전한 남성이 된 유춘은 옥랑에게 거듭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은인으로 칭사하고, 과거를 보기위해 옥랑의 곁을 떠나면서 재회를 약속한다. 여기서 옥랑의 파격적인 시도는 유춘이 완전한 영웅군자의 면모를 내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앞서 화소저의 경우 성기능의 결함이 갈등을 발발하여 이별을 초래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성기능 결함과 해소가 이별 즉, 임신양명의 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서 사회적 진출의 필요에 의한 분리로 기능하게 된다.

3) 수련 및 활약담 요소의 결합

： 천정 및 기녀 결연의 재회와 갈등해소

유춘이 본가로 돌아와 화상서의 집을 나오게 된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심사를 달라고자 산수 유람을 선택한다. 자신의 병으로 부인을 고독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으나 장인의 노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춘은 도사 아래서 수련하여 임신양명의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인다. 유춘은 한 도사를 찾아가 산에 머무르며 천문지리와 손오병법을 배우며 신이한 능력을 기른다. 한편 화상서의 집안

17) 너 한번 모진일을 할히여 보리라. 만닐 여의치 못흔들 관겨허랴 호고 단도를 니호게 가라 가지고 피씨살슈건을 가지고 싱의 누은것히 나아가 몸을 만지되 디취허여 잠니 쟈지 아니는지라. 그제야 마음을 모지리 먹고 바지를 만나마 벗겨도 모로거늘 그 구녕 잇는 곳의 가족을 집으니 가족이 느러져 싸로 드리거늘 날닌 칼긱츠로 한 번 버히고 손을 노호니 가족이 좌우로 갈나지며 남즈의 신과 낭이 일제이 비여지며 뉴혈이 낭즈호는지라.(<유화기연> 원문 권지삼 23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은 역적으로 몰려 화상서가 멀리 귀양을 가게 되면서 부인과 화소저만 남게 된다. 평소 화소저를 노리던 장평이란 인물이 화소저의 상황을 알고 납치하려는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화소저는 장평을 피해 시비 옥섬 이랑 달아나다 강가에 빠진다. 여승 혜원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옥섬과 함께 자하암에 머무르던 화소저는 유춘과 우연히 재회한다.¹⁸⁾

유춘과 화소저의 재회는 유춘이 지닌 성적 결핍이 해결됨과 더불어 과거에 급제한 이후 다시 찾아간 자하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지난날을 설화하며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과 그간 겪은 갈등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갈등이 해소될뿐더러 유춘의 결핍으로 이루지 못했던 운우지정을 누리는 양상을 보인다.¹⁹⁾ 여기서 도사와의 수련 및 활약담 요소의 결합은 유춘이 자신의 결핍을 극복한 후 온전한 영웅의 면모로 재등장하여 화소저와의 재회를 극대화 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유춘이 집을 떠난 이후의 서사공백을 채워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앞서 성적 결핍을 해소해준 옥랑의 행위에 따른 양상에서 언급했듯 유춘은 자신을 결핍에서 벗어나게 해준 옥랑을 천정결연으로 맺어진 화소저와 재회한

18) 쇼제 장탄 월 “나는 금능자 화상서의 일네러니 가운니 불헿혀 부친은 국가의 득죄 호스 원지의 적거 호시고 다만 모친으로 서로 의지하여 지니더니 작야의 명화적이 돌입하여 가지를 탈취홀 뿐 아니라 나를 겁박고져 호오미 피신하여 도망하다가 얹히는 더강을 당하고 뒤의는 짜로운 도적이 급호미 불측흔 욱이 당두 호지라. 닉슈하여 면육고져 호미러니 돈사의 구호시물 힘 넘어 다시 인세 다시 인인세를 보오나.”... 세돈의 지교의 페스로 다려오라 호시미 생각건더 또 후환을 넘겨 호시미니 폐암으로 나아가 길시를 기다리시다가 부모를 만나시리이다...(<유화기연> 원문 권지삼 8-9 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19) 초췌지동을 세세히 호여 탐탐흔 설해 무궁흔중 억낭을 만나 병신을 면호고 쾌한 남지된 말과 등과호고 내려온 스연을 말호미... 옥낭의 칼노 버혀 쾌히 남즈의 표적이 현출흔 말의 다다라는 옥안의 흥흔니 이러나고 붓그리는 티되 더욱 기의흔니 한님이 다년익모흔든 마음이 착급하여 쇼저의 옥슈를 잇그려 금금의 나아가 원앙비취 지낙과 무산 운우지몽이 무로녹야 건권지경이 비홀디 업고...(<유화기연> 원문 권지사 17-18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이후에도 잊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옥랑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자신의 부모에게 찾아가 그간의 곡절을 알린 후 자신의 성별을 분간하게 해 준 옥랑의 지략있는 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유춘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옥랑은 과거를 보러간 유춘이 무사히 과거를 치르고 다시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기다린다.

일일은 문박계 인성이 들네며 이집이 그집인가 하는 소린 나거늘 옥랑이
의아하여 너나라 보니 친교와 남녀 복뵈 무슈하고 즈기집을 찾느니 듯허거
늘 시비로 하여금 무러보라 하여더니... “낭즈야 낭즈야 뉴원슈 노아의 친찰이
왔느이다.” 옥랑이 반갑기 고지업서 급히 나와 꺼혀보니 슈야 상사흔든 낭군의
정찰이 분명흔지라. 기셔이 하여시더 “홀홀이 니별하고 형군하여 산적을 토멸
하고 부모를 뵈셔 상경하는 길의... 슈즈 셔찰과 인교를 발송하니 불일 상경
하여 서로 반기물 닐너 사의 간곡흔더라.”²⁰⁾

위에서와 같이 유춘은 과거 급제 후 주변 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전장의 원수가 되어 활약상을 보이는 중에도 옥랑을 잊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가 상경할 때 채교와 남녀 비복들을 보내어 함께 상경할 수 있도록 한다. 유춘은 옥랑과 재회하여 만인 앞에서 옥랑을 칭사하고 후처로 삼아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리 유춘의 능력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결핍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옥랑의 행위는 영웅이된 유춘의 활약담과 결합하게 되면서 재회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20) <유화기연> 원문 권지옥 31-32장,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서·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3. 남녀결연양상의 특성과 그 의미

앞서 작품의 서사구조에 따른 남녀주인공이 맺고 있는 각각의 결연 양상과 이를 통해 기능을 살펴본바 <유화기연>에서는 유춘과 화소저의 결연 양상과 유춘과 기녀 옥랑의 결연양상이 비슷한 두 축으로 서사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양상은 서로 대비되어 서사 속에서 기능함으로써 각각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만남’-‘성기능 결핍문제’-‘이별’-‘재회’라는 공통적 사건의 순서로 이루어진 남주인공 유춘과 여주인공 화소저와 옥랑과의 결연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결연이 서사의 담아내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확인하고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유화기연>에서 활용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만남과정은 고전소설 속 남녀의 결연담에 많이 활용되는 천정연분의 요소이다. 전생의 태을선이었던 유춘과 전생의 태을선녀였던 화소저가 요지의 연회에서 서로 희롱하다 벌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은 천정인연으로 맺어져 현세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구조이다. 유춘과 화소저의 천정결연은 <숙향전>의 주인공이 맺는 천정결연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인물이 <숙향전>에서는 여주인공이고, <유화기연>에서는 남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이미 하늘에서 서로 연분이 있었고 결연 성취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을 충분히 겪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²¹⁾

<유화기연>의 고난담에 있어 주목되는 지점은 바로 유춘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요소가 화소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향전>과 <숙영낭자전>의 경우 남녀 주인공은 천정연분에 따라 현세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며 두 사람의 연분이 작품의

21) 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 18, 배달말학회, 1993, 4쪽.

주요 줄거리가 된다. 이때 주로 고난을 겪는 쪽은 여자주인공으로 전생에서 함께 희롱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여주인공의 고난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숙향전>에서는 숙향이 ‘한 가지 같은 죄를 짓고도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태을선군은 고생을 덜 하게 하였냐.’는 불평을 할 정도로 숙향의 고생 비중이 압도적인 편이다.²²⁾ 그리고 여주인공의 고난이 남주인공과의 결연성취를 지체시키는 영향은 있지만 치명적인 결함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화기연>에서는 남자주인공이 전생에 태을선녀와 희롱한 죄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소변’을 본 특이한 죄목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때문에 현세에서 성기능이 결핍된 ‘남성’이라는 존재로 태어나 남주인공 개인적 고난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생의 연회에서 유춘의 ‘소변누기’ 사건은 현세에서 성기가 없는 남주인공의 기이한 탄생담에서 더 나아가 결연서사의 고난담으로 확장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소변누기’라는 죄목이 남녀주인공의 결연양상에 얽히게 되면서 천정연분에 대한 서사와 성기능 결핍에 대한 서사의 확대 및 결합이라는 독특한 작용을 수행하게 되며, 악인이나 전란의 횡포가 아닌 성문제로 인한 남주인공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고난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변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유화기연>에서는 천정연분으로 이루어진 결연뿐만 아니라, 기녀 ‘옥랑’과 결연을 맺는 기녀결연담도 서사의 큰 즐거움을 형성하고 있다. 기녀 옥랑과는 전생의 연분이 없을지라도 옥랑이 유춘과 강한 결연의지를 드러내고 행동함에 따라 천정배필인 유춘과 화소저의 결연에 버금가는 결연 양상을 보인다. 유춘과 옥랑의 결연은 기녀인 옥랑이 지인지감

22) <숙향전>, 필사본, 이화여대본, 43쪽.

(知人知鑑)을 발휘하여 시회(詩會)에 참여한 유춘의 면모를 알아보고 결연을 주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사람의 동침은 옥랑이 칭병(稱病)을 핑계로 연회장을 떠나가는 유춘을 따라가 자신의 집을 알려주고 찾아오게 함으로써 옥랑이 주도하고 유춘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결연을 맺게 된다. 또한 옥랑에게 있어 주도하는 동침의 의미는 단순히 즉흥적인 애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이 꿈꾸던 미래에 대한 열망에 따른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²³⁾ 옥랑은 유춘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라던 영웅군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시녀가 돼서라도 백년을 모시겠다고 강한 결연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옥랑의 적극적인 결연의 주도는 성기능 결핍으로 더 이상 결연을 맺고자 하지 않았던 유춘의 마음을 다시금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옥랑과 유춘의 기녀결연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기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결연을 맺고 끝나는 결연담과는 차이를 보인다.²⁴⁾ 또 다른 예로 지인지감을 지닌 기녀로 등장하는 <벽성선전>의 벽성선 같은 경우 남주인공과 맺은 결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점은 <유화기연>의 옥랑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주인공의 원부인에게 당하게 되고 굳은 모해를 모두 이겨내는 것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면모는 직접적으로 남주인공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하는 양상과는 차이를 지닌다. 그러므로 보통 기녀들과는 다른 그 사여기서 옥랑의 형상은 남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류장화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사대부가의 규녀와 비등한 외모와 음률, 시재(詩才)를 갖추었

23) 김중군,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양상 -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127쪽.

24) 김중군, 「고소설 속 기녀의 정조 의식과 가정 내 안주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45쪽.

으며 다른 남자들의 희롱에도 유춘말고는 곁을 내어주지 않는 인물로 주도적으로 유춘의 결연대상으로 자리함으로써 기녀결연담을 성기결핍해소담으로 매끄럽게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유화기연>에 나타난 두 개의 결연양상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은 남주인공의 성기결핍에 따른 여주인공들의 대응방식이다. 혼사 이후 남편에게 성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화소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이며 심중에 병이 들어 더이상 참지 못하게 되자 부모에게 발설하게 된다. 남편의 비밀을 발설하는 화소저의 양상은 다른 가문소설의 규녀들과 차이를 보인다. <사씨남정기>의 사씨의 경우 첩의 모해도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하진양문록>의 하옥주의 경우에도 첩의 모해에 목숨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사실을 숨기고 일절 발설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소저의 경우 심중의 울화를 참지 못해 부모에게 발설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서 유춘의 성기결핍은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 가문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효과를 일으킨다.²⁵⁾ 유춘의 결핍을 알게 된 장인이 유춘을 자신의 가문으로부터 축출하게 되고 장인과 사위의 갈등 서사로 이어지게 되면서 서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춘과 화소저가 맺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제 3자의 개입이나 세계의 횡포로 인한 타의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춘의 성기결핍으로 인한 화소저의 인식 변화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화소저는 남녀의 결연 중에서도 남녀의 운우지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추구함에 있어 솔직하다. 따라서 이를 평생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유춘의 성기결핍 사실을 밖으로 발설하게 되는 것이다. 화소저의 발설은 인물 간의 갈등을 빚음으로써 서사를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

25) 양혜란(1990), 앞의 논문, 250쪽.

용하며, 천정으로 맺어진 결연을 깨지게 만든다.

반면 옥랑의 경우 유춘과 며칠간의 동침에도 운우지정을 누릴 마음을 보이지 않자 지는 척을 하면서 성기 유무를 확인하는 치밀한 행위를 계획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의 고민을 발설하지 않는다. 성기결핍 사실을 알게된 옥랑이 유춘에게 자신의 놀라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놀라움은 유춘과의 사이로 한정한다. 옥랑은 자신이 처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고심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실행하기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옥랑이 유춘의 결핍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몰래 속으로 고민만 하고 고통스러워하던 화소저와 다르게 성기결핍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고안해 낸다는 것이다.²⁶⁾ 그렇기 때문에 유춘의 성기결핍문제는 두 사람 사이 이상으로 발설되거나 또 다른 인물들과의 갈등담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옥랑이 유춘의 성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만져본 후 유춘이 크게 취한 틈을 타 칼로 베어내어 감춰져 있던 성기를 돌출시키는 행위는 기녀결연담 자체를 전체 서사의 갈등 해소담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스스로 선택한 남성의 성기결핍 문제를 해결해내는 옥랑의 주도적인 행위가 <유화기연>의 독특한 서사를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게 되므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옥랑의 덕으로 결핍을 해소하게 된 유춘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대외적 명분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조정에 진출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집중한다. 내적으로 완벽한 남성의 형태를 갖추게 된 유춘은 자신의 천정배필인 화소저와 재회를 이루며 자신을 중심으로한 가문을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시킨다. 그러므로 옥랑과의 결연양상은 남주인공 유춘의 성기능 결핍을 해소해 주는 독특한 요소를 담고 있

26) 서경희(2017), 앞의 논문, 426~427쪽.

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몸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기녀결연담 자체의 확대를 초래하여 <유화기연>의 결연 서사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화기연>의 서사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유춘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서사구조로 짜여 있다. 때문에 유춘의 입신양명 과정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완벽한 남성으로 다시 태어난 유춘이 과거에 나아가 문무과 장원을 하고, 한림학사겸 어림군 병마도총 우림장군을 제수받게 되고, 서용이 침범하자 명군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출전하여 활약상을 벌이고 도사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기에 이르기까지 유춘의 대외적인 활약상은 다른 군담 소설의 영웅들의 면모와 다를 바 없이 형상화된다.²⁷⁾ 하지만 유춘이 전장에서 수련을 받던 도사들에게 도움을 받는 면모와 천상계의 개입은 유춘이 전생에 죄를 짓고 태어난 자일지라도 '태을선'의 현신이자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작품 후반에 드러난 유춘의 활약상과 이어지는 군담은 전반부인 남녀결연양상이 확장되고 유춘이 자신의 성기결핍을 해소함에 따라 가능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변별되는 점은 군담서사에서 유춘의 활약을 돕는 천상계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지라도 유춘이 영웅으로 발돋움함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성기결핍에 따른 사건들은 여자주인공의 결연관계 내에서 발견되고 이들의 행위로 해결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화기연>의 남녀결연양상은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유화기연>은 천정연분이라는 낭만적인 애정소설과, 기녀와의 결연담, 군담소설의 통속적인 특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천정연분이라는 낭만적

27) 서경희(2017), 앞의 논문, 428~429쪽.

인 요소는 태을선이었던 남주인공의 전생과 태을선녀였던 여주인공의 전생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세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는 것으로 낭만성을 실현한다. 기녀와의 결연담은 기생 옥랑과의 만남과 결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천정연분을 기반으로 하는 결연담은 <속향전>이나 <속영낭자전> 등의 결연담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 기생과의 인연을 기반으로 하는 결연담은 <구운몽>, <옥루몽>, <옥단춘전>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²⁸⁾ 또한 <유화기연>이 가진 군담소설적인 특성은 모든 영웅군담소설의 서사구조에서 어렵지 않게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유화기연>은 19세기 후반에 세책본으로 출간된 점을 미루어보아 당대의 널리 알려진 여러 소설들의 흥미소를 결집시킨 통속소설의 특성을 가진 작품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화기연>이라는 제목이 주지하고 있듯 <유화기연>은 영웅군담소설의 큰 범주 안에 존재하는 작품임에도 전형적인 영웅군담소설과는 다르게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서사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구활자본을 제외하고 세책본이 유일한데 세책본 <유화기연>에서 다른 화소들 보다 훨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남녀결연의 양상은 작품이 지향하는 서사 지향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세책본이 주로 담고 있는 인기 요소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²⁹⁾

남주인공 유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신 또한 평범한 남녀결연을 맺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며 입신양명의 뜻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점은 다른 고전소설의 인물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작품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녀결연양상 아래 성기능 결핍 즉, 성기결핍을 가진 남주인공을 배치하게 되면서 남녀의 결연과 더불어 상황

28) 서경희(2017), 위의 논문, 210쪽.

29) 엄태웅(2014), 앞의 논문, 593~594쪽.

에 대한 번뇌와 우울, 방황, 번뇌등을 극대화 시킨다. 또한 조선 후기 고전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남녀의 결연양상에서 더 나아가 당시의 관념으로 통념되기 어려운 부부 사이의 관계, 정서의 교감 등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서술의식과 서술구도를 탄생시킨다.

<유화기연>에서는 성기의 결핍문제를 환상성의 요소로 해결시키지 않는다. 물론 작중에 천상계의 요소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신이한 능력을 지닌 대사 혜원, 유춘의 수련과 활약을 돕는 도사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으나 이들은 남녀의 결연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 남주인공이 대외적 영역에서 활약할 때 활약상을 그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도사의 신이한 능력으로 성기가 생기거나, 대승의 능력으로 성기가 생겨나지 않는다. 유춘의 결핍을 드러내어 고난을 제공하고, 또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은 오로지 ‘남녀의 결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며 남녀 결연을 맺은 화소저와 옥랑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나타난 남녀결연 양상은 영웅군담소설의 큰 범주에 속하는 <유화기연>이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특성에서 구별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화소저와의 결연에서는 애정소설과 가문소설의 특성을, 옥랑과의 결연에서는 기녀결연소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의 확대와 변용양상은 작품을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제공하고 한 작품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서사구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는말

본고에서는 <유화기연>에 나타난 남녀결연양상을 ‘유춘과 화소저’, ‘유

춘과 옥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의 결연양상이 작품의 서사구조에 영향을 미쳐 서사가 확장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남녀의 결연담이 작품 서사에 큰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고전 소설 대다수의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결연담의 독특한 활용은 결연의 문제를 색다르게 그려내어 고전서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함으로써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유화기연>에서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 중에서도 남녀결연관계가 독특한 서사요소들과 결합하여 자리함으로써 변별성을 갖는다.

<유화기연>에서는 남자주인공이 전생에 태을선녀와 희롱한 죄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소변'을 본 특이한 죄목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때문에 현세에서 성기능이 결핍된 '남성'이라는 존재로 태어나 남주인공 개인적 고난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생 연회에서 유춘의 '소변' 사건은 현세에서 성기가 없는 남주인공의 기이한 탄생담에서 더 나아가 결연서사의 고난담으로 확장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남녀의 결연양상에 얽히게 되면서 천정연분에 대한 서사와 성기능 결핍에 대한 서사의 확대 및 결합이라는 독특한 작용을 수행하게 되며, 악인이나 전란의 횡포가 아닌 성문제로 인한 남주인공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고난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이와 함께 남주인공인 유춘의 성기결핍 문제를 해결해내는 기녀 옥랑의 주도적인 행위는 <유화기연>의 독특한 기녀결연 서사를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데 옥랑의 덕으로 결핍을 해소하게 된 유춘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대외적 명분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남주인공이 조정에 진출하여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서사로 자

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된 유춘은 자신의 천정배필인 화소저와 재회를 이루며 현생에서 만난 옥랑에게 은혜를 갚음으로써 현생에 자신에게 놓인 고난들을 모두 해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옥랑과의 결연양상은 남주인공 유춘의 성기 결핍을 해소해 주는 독특한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벗고 완성된 인간의 몸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기녀결연담 자체의 확대를 초래하여 <유화기연>의 결연 서사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유화기연·숙녀지기』, 이윤석·김경미 교주, 경인문화사, 2008, 1~483쪽.
- 구선정, 「〈유화기연〉을 통해 본 군자(君子)의 조건과 그 이면」,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61~89쪽.
- 구선정,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41~279쪽.
- 김종균, 「고소설 속 기녀의 정조의식과 가정 내 안주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39~181쪽.
- 김종균,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양상 -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115~141쪽.
- 서경희,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유동의 징후, 그리고 서사의 반동 - 〈유화기연〉의 ‘유춘’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403~437쪽.
- 송주희, 「〈정진사전〉에 나타난 결연담의 서사적 기능과 그 의미」,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2011, 195~ 217쪽.
- 심치열, 「〈유화기연〉, 기이성과 대중성의 서투른 결합」, 『인문과학연구』 36,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25~ 47쪽.
- 양혜란, 「〈柳花奇緣〉의 構造的 性格 檢討 - 꿈의 서사적 기능을 中心으로 -」,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241~263쪽.
-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기존 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4. 587~624쪽.
- 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 18, 배달말학회, 1993. 155~176쪽.
- 정도현, 「〈유화기연(柳花奇緣)〉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0. 1~ 95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the Meaning of the Females in <Yoochwagiyeon(유화기연)>

Kim, Tae-young

As the title suggests, <Yoochwagiyeon> is a Korean-language novel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contains a curious connection between 'Yu' and 'Hwa.' It is unique in that while the family of the heroine Yoo and the family of the heroine Hwa are at the forefront of the story, and i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ro and the '기녀' in a high propor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the work is a big part of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work, and despite the hero's appearance of the hero,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major events take place u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not a special be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about the effects of association between men and women of unique appearance, as well as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introduction of <Yoochwagiyeon>.

In the work, the main character not only has a flirting sin with the Taegeul Sunnyeo in his previous life, but also an unusual sin of seeing "sobyeon" at a banquet. This will result in a lack of sexual function in the present world, resulting in a much greater proportion of hardship. Therefore, the incident of "sobyeon" at a banquet in his previous life has expanded from the bizarre birth story of a male protagonist without genitalia to a story of hardship. It also becomes entangled in the bondage between men and women, serving as an extension of the narrative for the 'ChunJungyeon' and for the lack of sexual function.

Also, in the work, not only is the association made up of 'Cheonjeongyeon.', the story of a fairy-tale that binds with the '기녀 Ok-lang' also forms a large stem of the epic story. '기녀 Ok-rang' has no previous relationship with 'Yuchun', but as 'Ok-rang' acts in a way that

reveals his strong connection with 'Yuchun', his best friend, and it is comparable to that of 'Yoochun', a painter. The relationship between 'Yuchun' and 'Ok-rang' is significant in that they recognize Yoo's presence in the city council by showing a sense of recognition by Okrang, and then lead the case to solve i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Ok-rang and Yoo-chun i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story in which a man with an upper hand, both physically and economically, approaches a '가녀' with a beautiful charm and ends in a bond.

The shape of Ok-rang is not easily accessible to men. It has a high profile, a high level of voice, and a visual acuity. It is a man who does not give side to other men's jokes. In the future, Ok-rang plays a role in solving the male lead's sexual deficiency, forming a story that is unique to <Yoochwagiyeon>. The epic does not solve the male sex organ deficiency problem with the element of illusions. Of course, the elements of the celestial system are inserted in the works.

Although elements of the heavenly system have been placed in various places, they do not deviate from their role of kee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unbreakable and their supporting roles to help the male lead portray his performance when he is active in the international arena. It is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that reveals the deficiency of 'Yuchun' and provides hardship and solves the deficiency. Only 'Ok-lang' is qualified. Therefore,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work is important in examining where the story of <Yoochwagiyeon>, which falls into a large category of hero novels,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 hero novels.

Key Words Yoochwagiyeon, sexual dysfunction, a match made in heaven, gisaeng
a tie-up, hero-war novel

논문투고일	: 2019.06.29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